

“금남로서 극우집회 웬말” 광주 시민 ‘방어선’ 친다

보수단체 15일 탄핵반대집회... 시민단체 연석회의 방어 나서



1980년 5월 1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광주시민과 대학생이 '계엄령을 해제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보수단체들이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49재' 날이기도 한 오는 15일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1만명 규모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예고하고,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같은 장소에서 방어에 나서기로 하면서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광주시, 광주시의회, 5개 자치구,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오월단체 등은 13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12·3 계엄 및 내란 지지 집회 대응을 위한 광주 지역사회 연석회의'를 열고 보수단체 집회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연석회의에서 "집회·시위·표현의 자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혐오, 내란 선동과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5·18 정신을 왜곡하고 헌법을 훼손하는 세력을 용납할 수 없다"며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은 "반민주세력이 소위 세대 간 갈라치기를 전략적으로 하고 있고 보수 언론이 여론을 호도 중"이라며 "광주 2030 세대가 많이 울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큰 관건"이라며 탄핵 반대 집회에 맞설 것을 예고했다.

지역사회 대표 40여명은 연석회의에서 '반헌법 극우세력, 내란 선동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한 뒤 5·18민주화운동 중심지인 5·18민주광장으로 이동해 기자회견과 함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계엄의 밤, 사청에 모여 비상계엄 무효를 선언했던 우리가 5·18민주광장에

다시 모였다"면서 "전두환 쿠데타 세력의 만행에 맞서 싸우면서 수많은 민주시민이 피를 흘린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에 내란을 선동하는 반헌법 극우세력을 위한 공간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치"라면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하는 가짜 민주주의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신속한 대통령 탄핵과 내란 세력 엄벌 ▲결집한 혐오의 힘에 맞서기 위한 '꺼져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금남로에서 1만명 규모의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1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도 같은날 예정된 윤석열 퇴진 14차 광주시민 총궐기대회 장소를 5·18민주광장에서 금남로와 전일빌딩 245 앞으로 변경했다. 5·18민주광장에서는 시민 한마당과 나눔 부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등은 집회 장소가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해 충돌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질서 유지 등을 위한 경찰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강 시장은 "절대 불상사를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게 큰 원칙"이라며 "토요일이지만 많은 시민이 삼삼오오 시위에 참여해달라.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전남 초등 32곳 신입생 없어 입학식 못해

지속하는 저출산 현상과 지방소멸 위기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전남 지역의 초등학교 신입생 역시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지역 초등학교 입학 진학 예정 아동 수는 2023년 1만2881명과 지난해 1만1155명에 이어 1만108명으로, 1만 명이 넘었지만 매년 1000명 이상씩 줄어들고 있다.

해마다 1000여명 이상 감소하는 추세 속에 신입생 1명도 받지 못한 학교(분교·분교 포함)도 32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수시가 분교 3곳과 분교장 4곳 등 모두 7개 학교로 가장 많았고, 보성군 분교 4곳, 진도군 분교와 분교장 각각 2곳, 장흥군 분교 3곳, 완도군 분교 2곳 분교장 1곳, 순천시·영광군·신안군 분교와 분교장 각각 1곳, 나주시·영암군·무안군 분교 1곳, 해남군·고흥군 분교장 1곳씩이었다.

전남도, 신입생 1만108명
해마다 1000명 이상 줄어
10명 미만인 학교가 270곳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학교도 많았다. 전체 458개 초등학교 중 270곳으로 휴교 중인 13개 학교를 제외하면 61%에 이른다. 목포시가 33개 학교 중 7곳(21%), 여수시 53곳 중 19곳(36%), 순천시 41곳 중 13곳(32%), 나주시 24곳 중 11곳(46%), 광양시 29곳 중 10곳(34%)으로, 평균 세 곳 중 1곳이 신입생이 10명에 미치지 못한다.

군 지역은 더욱 심각하다. 80%의 학교가 신입생이 10명도 되지 않는다. 담양군 14곳 중 10곳(71%), 곡성군 8곳 중 6곳(75%), 구례군 10곳 중 8곳(80%), 고흥군 19곳 중 17곳(89%), 보성

군 16곳 중 13곳(81%), 화순군 16곳 중 10곳(63%), 장흥군 14곳 중 12곳(86%), 강진군 13곳 중 12곳(92%)이 10명 미만이다.

해남군 21곳 중 18곳(86%), 영암군 16곳 중 12곳(75%), 무안군 20곳 중 14곳(70%), 함평군 11곳 중 10곳(91%), 영광군 14곳 중 12곳(86%), 장성군 13곳 중 6곳(46%), 완도군 23곳 중 18곳(78%), 진도군 14곳 중 12곳(86%), 신안군 21곳 중 20곳(95%)이다.

특히 신안군의 경우 가장 많은 11명이 입학하는 지도초등학교를 제외하고 1명이나 2명인 학교가 각각 4곳, 3명인 학교 2곳, 4명인 학교가 3곳, 5명인 학교가 1곳, 6명 2곳, 8명과 9명 1곳씩이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과 학교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다. >2면으로 계속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중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통취재단>

헌재, 尹 탄핵심판 18일 추가변론 진행

2월 내 선고 가능성 낮아져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18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관련기사 3면>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최종 결정 시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변론기일이 추가 지정돼 이달 내 선고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서울 중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하루 중 일 계속하는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9차 변론기일을 2월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며 "이날 지금까지 증거로 채택됐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8일에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그동안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2시간씩 부여하기로 했다. 서면증거 유지 정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14일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측이 재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6명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가 이들 중 일부를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변론 기일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재판부는 한 총리에 대해 "(사건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가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증인으로 재신청했다.

헌재가 18일로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함에 따라 이달 내 탄핵심판 결정 선고 가능성은 낮아졌다. 통상 헌재 선고가 나오기까지 변론 종결 이후 2주가량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18일 변론이 종결될 경우 선고는 이르면 3월 초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한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004년 4월 30일 변론을 종결하고 2주 뒤인 5월 14일 선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17차 마지막 변론(2017년 2월 27일) 이후 11일만인 3월 10일 탄핵이 결정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소상공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날벼락 ▶6면
복스- '시간의 연대기' '새들의 기원...' ▶14·15면
KIA 이이리 6월 복귀... '급할수록 돌이키야' ▶18면

당신의 다음 클래스를 향해,
그리고 당신의 여유로운 삶을 향해

The new EQA & EQB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4-5001 & 광주 임흥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A 2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5 | 도상: 5.4, 고속도로: 4.6 | 1회 충전거리(km): 367, 공차중량(kg): 1985, 배터리 용량(kWh): 65.9
EQB 300 4M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4.1 | 도상: 4.3, 고속도로: 3.9 | 1회 충전거리(km): 302, 공차중량(kg): 2135, 배터리 용량(kWh): 65.9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